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개발처 농촌계획부 최종태(061-338-5421) / 제공일: 2021. 8. 25. (총 2매)

지역개발사업 ‘농어촌소통지도사’ 에게 맡겨주세요

○ 농어촌公, 외래어가 포함된 자격명칭(농어촌퍼실리테이터)을 농어촌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(농어촌소통지도사)로 순화

-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8월19일부터 ‘농어촌퍼실리테이터’ 자격명칭을 ‘농어촌소통지도사’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.
- 기존의 명칭은 농어촌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(퍼실리테이터)로 되어 있어,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- 이에, 공사는 외래어로 된 자격명칭을 농어민뿐만 아니라,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‘우리말로 된 자격명칭 변경 공모전’을 실시했다.
- 공모결과를 토대로 자격소지자(258명)의 선호도 조사 및 국립국어원의 정책용어 자문을 거쳐, 농식품부 등 내·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 명칭이 최종 선정되었다.
- 선정된 ‘농어촌소통지도사’는 농어촌 현안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 간 소통을 유도하고, 의견을 중재·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‘농어촌소통지도사’는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마을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, 마을발전을 위한 현장포럼,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로서, 2011년부터 현재까지 258명이 배출되었으며, 지역개발사업의 예비·기본계획 수립, 역량강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.

- 올해 ‘농어촌소통지도사’ 양성교육 수료자는 53명으로, 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.
- 양성교육, 자격검정 등 자격취득과 관련된 세부일정은 공사 누리집 (www.ekr.or.kr) 사이버홍보(알림마당-공지사항)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- 합격자들은 자격취득 이후 농어촌의 여건 및 전망,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등과 관련된 보수교육 및 고도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한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이번 자격명칭 변경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어, 농어촌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며, “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